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스리랑카

I.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GDP	323억 달러(2007년)
인구	19.3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676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율(달러당)	110.62 (2007년)

- 인도 남동부 인도양상에 위치한 도서국임.
- 내수 시장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곤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GDP의 58%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타이거 반군(LTTE)간의 오랜 내전을 겪었으며 최근 2002년의 휴전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양측간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e	2008 ^f
경제성장률	5.4	6.2	7.7	6.8	4.0
재정수지 / GDP	-7.4	-7.0	-7.0	-6.9	-6.6
소비자물가상승률	9.0	11.0	10.0	15.8	21.1

자료 : IFS, EIU

□ 경제성장률

- 스리랑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서비스부문과 건설부문의 호조로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7년에는 민간소비 증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GDP의 58%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7.1% 성장 시현 등으로 인해 6.8%의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서비스부문은 통신, 항만, 무역, 도소매, 금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8년에는 휴전협정 종료 이후 격화된 정부와 타밀반군의 무력충돌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급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며 200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부진한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GDP

- 스리랑카의 재정상태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음. 열악한 인프라

상태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공 투자확대가 필요하나, 국방부문 지출확대가 이어지면서 투자여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 2007년에도 조세수입 증대조치, 조세행정 개선, 정부부채 관리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문의 지출확대 등으로 재정수지/GDP 비율은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6.9%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도 스리랑카의 재정부문은 국방부문으로의 지출확대와, 높은 물가상승률, 교전격화 등으로 악화된 민간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04년까지는 물가지수 구성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2006년에는 고유가, 전기료 및 버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10.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도 기본적으로 고성장 정책의 유지, 정부의 지출확대, 국제 유가 급등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15.8%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도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2007년에 비해 더욱 높은 21.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에는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삭감하며 유류가격을 인상하였고 이에 2008년 5월에는 26.2%의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소비, 투자 심리 악화를 우려해 금리 인상 대신 시중 유동성 감시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시중 유동성 증가율은 최근 둔화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외부요인이 완화되게 된다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구조적 취약성>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현재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반군과의 교전 악화로 인한 국방부문 지출확대로 인해 스리랑카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높은 대외 의존도

- 국토 및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특히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임.

□ 내수시장,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

- 스리랑카는 인구가 2천만명 이내의 개도국으로서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보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큰 약점임. 또한 제조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근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스리랑카보다는 이들 국가로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낮은 노동생산성

- 스리랑카의 노동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서남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며, 노동법이 경직되어 종업원 해고 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큼. 또한 공휴일이 많고, 고급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열악한 인프라

- 스리랑카의 투자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서, 특히 전력문제가 심각

한 장애요인임. 전력요금이 비싸고 잦은 정전 등으로 인해 도시기업의 약 75%는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전력공급의 50%를 수력발전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주요 애로사항임.

<성장잠재력>

□ 관광산업의 성장성

- 스리랑카는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연중 내내 해변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고, 섬 중앙부에 고원지대가 자리 잡고 있어 고원 휴양지가 발달해 있으며 고대 유적지도 많은 편이어서 종합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함.
- 최근 쓰나미 및 내전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통신 부문의 빠른 성장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으로 인해 스리랑카 통신 부문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6년 7.4%로 증가하였고, 핸드폰 보급은 연간 50%대의 성장을 하여 핸드폰 사용인구는 2001년 67만 명에서 2006년 54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2007년에는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투자액을 대폭 증대하였으며, 인도의 거대 통신 기업인 Bharti Airtel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스리랑카가 남아시아 7개국 대비 이동전화 부문의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문맹률이 10%를 넘지 않고, 영어사용 인구가 많으며 스리랑카 젊은이들이 최신 IT 장비 유행에 민감하여 최신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중고 휴대폰 시장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동전화 보급률 상승의 원인임.

□ 대인도 시장 우회진출기로서 부상

- 인접한 거대 잠재 시장인 인도시장의 부상에 따라 인도와의 지리적인 인접성,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대인도 시장 우회진출기로서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정책성과>

□ 정부,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자 예금 유치 허용

- 정부는 6월 2일부터 시중 상업은행들의 외국인 투자자 예금 유치를 허용하였음. 외국의 개인, 펀드, 기업들은 스리랑카 현지 통화 혹은 다른 외국 통화 등으로 스리랑카 현지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으며, 최소 예금 잔액은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함. 시중은행들은 스리랑카 국내 예금의 20%까지 외국인 예금이 허용됨.
- 정부는 이를 통해 스리랑카 현지 금융 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투자자로부터의 예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최근의 불안한 경제상황에 위협을 느낀 스리랑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화 유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스리랑카 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2000년에는 인도와 그리고 2005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음. 한편,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등은 2006년 1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서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교역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음.

- 스리랑카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기업 과실에 대한 송금 보장,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 자유로운 주식양도 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2008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90위를 기록했고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115위), 인도네시아(119위), 베트남(135위) 보다도 앞선 순위임. 이러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가 합쳐진다면 투자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e	2008 ^f
경 상 수 지	-677	-743	-1,434	-1,201	-2,364
경 상 수 지 / G D P	-3.3	-3.0	-5.1	-3.7	-5.7
상 품 수 지	-1,443	-1,630	-2,345	-2,404	-3,616
수 출	5,757	6,347	6,883	8,144	9,794
수 입	7,200	7,977	9,228	10,548	13,410
외 환 보 유 액	2,058	2,581	2,762	3,443	3,601
총 외 채 잔 액	11,085	11,271	11,446	12,204	12,956
총 외 채 잔 액 / G D P	53.7	46.2	40.5	37.7	31.1
D . S . R .	8.5	4.5	8.8	6.6	6.7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 스리랑카는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이 증가하며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한편 수출은 섬유 및 의류, 차, 고무관련 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음.
- 2007년에는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18.3% 증가

한 81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음. 특히 차의 경우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의류 수출도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갔음. 하지만 국제적인 고유가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 역시 크게 증가하며 상품수지는 24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도 섬유 및 의류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고유가 현상, 식료품 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와 군수 물자 관련한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 2006년 중 경상수지는 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4년 말 쓰나미 피해에 따른 주요 채권국들의 원리금상환 1년 유예조치 종료,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원조자금 유입 감소, 상품수지 적자확대 등에 기인한 것임.
- 200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와 더불어, 국가 치안 상황의 악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12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송금 증가 등으로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07년 22억 달러 규모로 흑자가 확대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 기준 34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음.
- 2008년에도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 확대에 의해 24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2007년 -3.7%에서 2008년 -5.7%로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외채상환능력

- 2007년 기준 총외채규모는 122억 달러 수준이나, 외채의 지속적 관리와 견조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은 2004년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D.S.R도 10% 이하에 불과하여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 * 2006년 기준, 단기외채는 총외채의 7.5%에 불과하고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도 31%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다만,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휴전협정 종료로 인한 스리랑카 내부 안보상황 악화를 우려해 해외원조기관들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원조자금의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외채관련 부문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안정>

□ 정부와 타밀반군(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간의 휴전협정 폐기

- 지난 2002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지원과 노르웨이의 중재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휴전협정(Ceasefire Agreement)이 발효되어 2-3년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으나, 2005년말 현 정부 집권 이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처럼 휴전협정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더 이상의 평화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 2008년 1월 2일 타밀반군과의 휴전협정 폐기를 결정하였음.

- 정부는 휴전협정 폐기 이후 동북부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타밀반군 소탕을 위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하였고 이에 맞선 타밀반군은 군사적 대응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 주요시설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활동을 펼치고 있어 스리랑카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

□ 당분간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분쟁 지속될 전망

- 정부는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며 반군을 공격하고 있으나 타밀반군 역시 주요 인사 공격, 테러 행위 등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의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부가 타밀반군의 리더인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Velupillai Prabhakaran)을 사살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반군 측에 제시하고 있으나, 타밀반군측은 스리랑카로부터의 완전 독립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 양측의 분쟁과 폭력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제관계>

□ 인도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

- 스리랑카와 인도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타밀문제, 해양경계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불편한 관계를 지속한 바 있음.
-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점차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현재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2007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수출의 9.9%, 수입의 21.7%가 인도와의 교역에서 발생하였음.

□ 서방국가의 원조 축소 움직임

-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유치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및 EU 국가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특히 서방거주 타밀계들의 타밀반군 지원 차단을 위해 미국 등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최근 인권 침해 등 타밀반군과의 치열한 내전과 관련된 이유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스리랑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에 실패

- 2008년 5월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스리랑카는 이사국 재선에 실패하였음. 타밀반군과 정부군간의 교전 심화로 인한 인권 피해 증가와 정부의 언론 탄압 증가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것이 재선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됨.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유엔이 스리랑카에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스리랑카 교전 사태에 적극 개입해 내전에 시달리는 민간인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안정>

□ 타밀족과 싱할리족간의 종족갈등

- 스리랑카 동부 및 북부지역에 밀집거주하며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타밀족(17%)과 다수족인 싱할리족(70%)간에 종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과거 영국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소수족인 타밀족을 우대하였는바, 이에 싱할리족의 불만은 커져갔고, 1948년 독립 이후 타밀어 공용어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양 종족간 긴장은 고조되었음.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싱할리

족과 타밀족의 인종 분류는 1983년 타밀 지역에서 강경파인 LTTE가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격화되었음.

- 이후 타밀반군은 스리랑카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며 반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음. 정부군과 타밀반군간의 내전은 아시아에서 진행된 가장 오래된 내전이며, 2002년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서명되기까지 20여년간 약 6만 5,000명이 사망하였음.
- 또한 휴전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양측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 12월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5천여 명이 사망하였음.

<소요사태>

□ 타밀반군의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정부군과 타밀반군과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음. 타밀반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활동을 펼치고 있고 특히 도로, 버스, 기차, 쇼핑센터 등을 공략하고 있음.
- 2008년 6월 6일, 콜롬보 외곽 모라투와의 도로에서 타밀반군의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하였고, 6월 16일에는 반군의 자살폭탄테러로 인해 경찰관 12명이 사망하였음. 5월 26일에는 콜롬보 인근 데히왈라 역 근처를 지나던 통근열차에 폭탄이 터지며 7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당하였고, 4월 25일에는 반군이 버스에 폭탄테러를 일으키며 24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 타밀반군은 또한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테러활동도 펼치고 있음. 2008년 1월 8일에는 콜롬보 공항 인근 도로에 지뢰가 터지며 다사나야케 건설 부동산 인프라개발 장관이 사망하였고, 2008년 4월 6일에는 콜롬보 외곽에서 열린 마라톤행사장에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페르난도플레도로개발부 장관과 10명의 시민이 사망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고 총외채/GDP 비율이 2004년 53.7%에서 2007년에는 37.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또한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D.S.R도 10%이하에 불과하여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 S&P는 2008년 2월 15일, 스리랑카의 높은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악화 우려, 비양허적 외화표시 채무의 증가, 악화된 내부 안보 상황 등을 근거로 향후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조정하였음. 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B+ 유지
- FITCH는 2008년 4월 3일,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재정적자,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악화, 외채부문의 전망 악화,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교전 격화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의 외화표시 장기채권의 등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2008년 4월 OECD 회의에서 스리랑카의 국가위험도 등급이 종전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조정되었음.
- S&P : B+(05/12)
- FITCH : BB-(05/12) => B+(08/4)
- OECD : 5등급(06/4) => 5등급(07/3) => 6등급(08/4)
- I.I. : 100/174(07/3) => 98/174(07/9) => 99/174(08/3)
- Euromoney : 98/185(07/3) => 88/185(07/9) => 97/185(08/3)
- ICRG : 117/140(07/6) => 119/140(07/12) => 120/140(08/6)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주요 ECA의 인수 태도

- US 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고용협력분야에서 2004년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음.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유상원조사업의 중점 협력대상 국가의 하나로서, 집행액 기준으로 2008년 6월 기준, 총 16건의 사업에 약 1,815억원의 EDCF 자금이 지원되어 중국에 이어 2위의 지원국가임.
- 우리나라와 스리랑카의 교역규모는 1997년 530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에 진출한 국내의 섬유 및 봉제업체들이 경쟁력 악화로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원부자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섬유관련 제품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자동차, 컴퓨터, 철강 등의 주력 수출품목들은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수입의 경우 밀겨, 코코넛 원료 및 제품, 고무원료 및 제품 등 1차 상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V. 종합 의견

- 민간소비 증대, 섬유수출 호조,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강한 성장세로 2007년 7.1%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8년에는 정부와 타밀반군과의 교전 격화,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등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월,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휴전협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며,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어 스리랑카의 내부 안보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임. 정부는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며 반군을 공격하고 있으나, 타밀반군 역시 무차별 테러 행위, 주요 인사 공격 등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의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국제적인 고유가 현상과 식료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교전 격화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등이 스리랑카 경제상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금년 들어 Fitch가 스리랑카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S&P는 향후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으며, OECD 역시 스리랑카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스리랑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